

개회사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NK202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3차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해외 초·중·등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함께, 모두 8개 분과에서 22개의 연구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33차 국제학술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축사를 보내주신 국립국제교육원 김영곤 원장님,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세종학당재단 이해영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 주제의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부산외국어대 정명숙 교수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미영 팀장님, 그리고 우리 학회 부회장님인 이미향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학회에서 매년 한 번씩 준비되는 국제학술대회로 9개국 열세 분의 해외 연구자의 발표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차 국제학술대회는 지금까지의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의 현지 한국어교육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가 최근 해외 중등교육에서 한국어교육 확산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11대 이사진이 출범하고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이 시간 11대 이사님들 한분 한분이 바빠 움직여주셔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가을 학술대회를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우리 학회 학회지에 대한 ‘KCI 등재지 심사’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직간접으로 우리 학회 여러 이사님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학회의 조수진 부회장님, 이미향 부회장님, 신윤경 부회장님, 진대연 부회장님, 오지혜, 김금숙 총무이사님,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기획을 맡아서 준비해 주신, 기준성, 김은정, 윤은경, 최은경 연구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장소 마련해 주시고 준비에도 힘써 주신 한국외대 이사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가을에 진행될 INK2022 학술대회를 통해 2023년의 한국어교육을 미리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말에는 코로나라는 태그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임형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3차 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형재 학회장님과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의 학문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나아가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해외 초·중등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국제교육원도 해외 한국어 학습자 확대와 내실 있는 한국어 교육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해외 현지학교가 확대되고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을 통해 600여 명의 우수 한국어 교원을 해외 초·중등학교에 파견하여 지한·친한 인사를 육성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한국어 채택교 및 한글학교 학생, 한류 기반 한국어 학습자 등이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고 학습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기존 TOPIK I보다 난이도가 낮은 기초 단계의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언어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확산 및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계신 학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영곤

축사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주최하는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에 공헌하고 계신 한국어 교육학자 여러분과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2001년 9월 창립 이후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해외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한국언어문화학’은 한국의 언어·문화 연구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저명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어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여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해외 초중등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온택트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육방안과 다양한 국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창조적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연구가 UN이 말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민족이 고유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형제애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구 활동의 현장에서 이 점을 항상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정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정신을 한국어에 담아 세계와 소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한국어 저변 확대가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 행사를 통한 풍부한 연구 성과도 기대합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임형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김성곤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어문화학회 제33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8개국에서 참여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한국어 사용자가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로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어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년 전인 2020년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의 고시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누구든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지 언어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됨에 따라 지금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류의 관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인도와 터키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수요지역·문화·언어권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을 자문하면서 국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초·중등 한국어언어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라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주제가, 해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분야의 연구자와 교육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의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시의적절한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형재 회장님과 국제한국어문화학회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3차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귀한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형재 학회장과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어교육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전세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땀 흘리시는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2001년 창립 이후 한국 언어문화를 연구하고 국제 사회 보급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20년 넘게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매년 학술지 발간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해 오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 문화교육의 쟁점과 과제”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하였고, 태국과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정하여, 이제는 해외 초중고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정규과정으로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해외 초중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주요 쟁점들과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앞으로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지속적인 교류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학당을 통해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초중등의 어린 시절부터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더욱 번창하길 바라며, 한국언어문화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인 학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